

# 텍스트 결속 단위에 따른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 민 경

## Abstract

**Lee Minkyung.** 2016. 9. 30. **A Study on text binding aspect of Auxiliary Particle ‘do’ in written texts of Chinese learners.** *Bilingual Research* 64, 97-119. The auxiliary particle ‘do’ is a characteristic cohesive device of Korean language which does not exist in English or Chinese language. Meanwhile, the studies on cohesive device centered on written texts of Chinese learner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been conducted in relatively active ways, the discussions on the auxiliary particle ‘do’ as a cohesive device were not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studies to highlight its specific device aspect of how the auxiliary particle ‘do’ connects units, targeting written texts of Chinese learners. For this purpose, after classifying the cohesive devices in written texts of Chinese learners into within-sentence, between-sentence, between-paragraph according to binding units, this study examines which binding unit is most frequently used when connecting the auxiliary particle ‘do’ by Chinese learners. Then, this study also examines which binding unit has most frequent errors when using the auxiliary particle ‘do’ and the associated reasons.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ext binding aspects of the auxiliary particle ‘do’ in within-sentence, between-sentence, between-paragraph by comparing them to the binding aspects of Korean native speakers in detail. It is expected that these findings can provide significant basic materials for teaching appropriate texts close to the target language to Korean language learners by utilizing the auxiliary particle ‘do’.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결속 단위(binding unit), 결속 양상(binding aspect), 문어 텍스트(written text), 보조사 ‘도’(auxiliary Particle ‘do’), 응결장치(cohesive device)

## 1. 서론

이 글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 한국어교육에서 응결장치에 대한 연구는 응결성 연구의 효시로 간주되는 Halliday & Hasan(1976)이 제시한 지시, 대용, 접속, 어휘 층위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sup>1)</sup> 이 분류 체계는 영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보조사 ‘도’의 경우 이 중 한 유형에 포함시키기에는 분류상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보조사 ‘도’는 고영근(2011:104)에서 밝힌 대로 텍스트 결속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조사 ‘도’가 텍스트의 여러 층위에서 어떻게 텍스트를 연결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스트 응결장치로서 보조사 ‘도’가 텍스트 내에서 어떤 단위들을 연결하는지, 주로 어떤 층위에서 결속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텍스트 결속 단위를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으로 나누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양상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는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 중 어떤 단위들을 연결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가?
- (2)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은 문

---

1) 연구자에 따라 cohesion을 결속성, 결속구조로, cohesive device를 결속장치, 결속기제로 번역하는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영근(2011)의 용어를 따라 cohesion은 응결성, cohesive device는 응결장치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장 내, 문장 간, 단락 간에서 각각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 2. 선행연구 검토

최근 국어 교육에서는 규범적인 지식 위주의 기존 문법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문법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반성적 움직임으로,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응결성을 부여하는 보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해 가고 있다(양세희 2014, 임유리 2015).

‘도’를 비롯한 일부 보조사들이 텍스트의 응결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결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응결장치 사용 양상을 고찰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김성경 2009, 조혜순 2010, 한지은 2010). 그러나 ‘도’를 비롯한 일부 보조사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중 민주희(2010)는 보조사 ‘은/는’, ‘도’, ‘조차’, ‘까지’, ‘만’ 등을 포함하여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응결장치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보조사들이 어떻게 텍스트 응결성을 높이는지 구체적인 결속 양상은 밝히지 않고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사 사용 빈도와 오류 분석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결속 단위를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으로 나누고, 보조사 ‘도’가 어떻게 텍스트 내 언어 표현들을 연결해 나가는지 구체적인 결속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보조사 ‘도’ 교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3. 이론적 배경

#### 3.1.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기능

고영근(2011)은 문법의 범위를 텍스트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면서 보조사 ‘도’에 텍스트 응결장치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 (1) 가. 영수가 과자를 한 봉지 샀다.
- 나. 철수도 한 봉지 샀다.<sup>2)</sup>

(1나)의 ‘도’의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1가)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앞 문장에서 영수가 과자를 산 행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 있는 발화라고 하기가 어렵다.

황미향(1998)은 텍스트 결속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들이 말하는 이나 글쓴이의 태도를 반영하므로 ‘화용조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텍스트 응결장치로 어떤 화용조사들이 있는지 탐색하는 데 자매항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sup>3)</sup> 보조사 ‘도’의 경우, 그것의 ‘선행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자매항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된 ‘문장’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그래서 더 상위 주제로 귀속될 수 있는 명제적 단위를 자매항으로 지닌다고 하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 가. 국어 음운상 특질로는 음상의 차이로 표현의 의미가 달라지는

---

2) 고영근(2011:104)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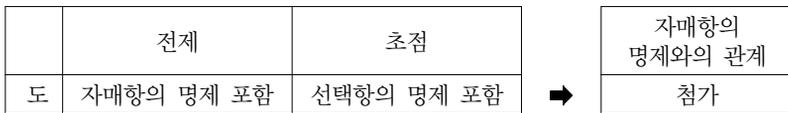
3) 자매항(sister member)은 양인석(1973) 이후 여러 연구에서 보조사의 의미를 규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윤재원(1988:112)은 자매항에 대하여 “자매항은 담화상의 범위에 속한 원소 중 문제의 보조사의 선행어로 실현된 것이 아니면서 해당 문장의 언명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라고 정의하였다(양세희 2013:127).

것을 들 수 있다. 국어의 자음 중 파열음 계열은 삼중 체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거니와, 모음 체계도 양성파 음성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음상의 차이가 어감을 다르게 만든다.

나. 음상의 차이로 인한 어감의 차이 [[자음 중 파열음은 삼중체제로 인하여 음상의 차이가 있다] + [모음 체계는 양성파 음성으로 인한 음상의 차이가 있다]도<sup>4)</sup>

(2가)에서 ‘도’는 ‘양성과 음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또 다른 어휘 항목을 함의하는 것이 아니다. 자음 중에서 파열음은 ‘양성과 음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삼중 체계로 되어 있다’. ‘도’는 음상의 차이로 드러나는 또 다른 현상을 함의하므로 ‘도’의 자매항은 체언항‘파열음’이 아니라 ‘파열음이 삼중체제로 되어 있다’는 명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는 ‘파열음이 삼중체제로 되어 있다’와 ‘모음은 양성파 음성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명제를 ‘음상의 차이로 인한 어감의 차이’라는 상위의 주제로 결속하는 것이며 (2나)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양세희(2014)는 보조사 ‘도’의 중심적 의미가 ‘동일성’이라고 하면서 ‘도’의 텍스트 결속 기능을 전제와 초점을 이용한 자매항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1>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기능

보조사가 결합한 항은 화자 또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현저성을 부여한 것이며 자매항은 초점화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한 배경이자 전제가 된다.

4) 황미향(1998:107,108) 인용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도’는 동일성에 의해 선택항의 명제는 초점화되고 전제항의 명제 또한 포함하게 되므로 둘은 ‘첨가’의 관계를 갖게 되나, ‘도’가 지닌 강조의 의미는 자매항을 가지지 않으므로 텍스트 결속 기능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sup>5)</sup>

이와 같이 보조사 ‘도’는 자매항이 존재함으로써 텍스트 응결장치로 주목되는 장치이다. 응결장치로서 보조사 ‘도’의 자매항은 ‘도’가 실현된 문장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명제로, 두 명제는 상위 범주로 묶일 수 있다. 이 명제들은 첨가의 관계를 맺으며 앞 명제는 전제, 뒤 명제는 초점이 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의 이러한 결속 기능에 주목하여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단, 강조의 의미에는 자매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 살펴보겠다.

### 3.2.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단위

보조사 ‘도’는 텍스트의 여러 층위에서 결속력을 발휘한다. (3)은 보조사 ‘도’가 문장 내에서 응결장치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 (3) 가. 일**도** 성공**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 시간이 지나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추억이 된다.  
 다.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다.

5) 홍사만(2002:216~233)에 따르면 ‘도’의 감탄적, 강의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탄 조사 같은 성격을 띠게 한다. 특히 ‘꿈**도** 꾸었다’, ‘많기**도** 많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와 같은 동일 어구의 반복형이나 ‘아마**도**’, ‘멀리**도**’ 등의 부사어형, ‘하면서**도**’, ‘놀다가**도**’ 등 용언 어미 등에 첨가될 때의 ‘도’는 대부분이 화자의 강한 감정적 요소에 의한 강조적 첨의 기능을 나타낸다.

(3가)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3나)에서는 명사구와 명사구를 그리고 (3다)에서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다. ‘도’는 문장 내뿐만 아니라 (4)와 같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한다.

- (4) 최근에는 사람들이 ‘예쁘다’, ‘잘생겼다’는 칭찬보다 ‘어려 보인다’는 칭찬을 더 선호한다. 심지어 ‘동안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외모를 가꾸는 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4)는 동안 열풍으로 인한 현상을 나열하며 마지막 문장에서 ‘도’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 결속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 ‘도’는 문장군을 결속할 수도 있다.<sup>6)</sup> (5)에서 문장군 (ㄱ)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대한 내용이고, (ㄴ)은 ‘해운대’에 대한 내용이다. 두 영화의 유사점 즉 영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것인데 ‘도’에 의해서 문장군 (ㄱ)과 (ㄴ)이 결속되고 있다.

- (5) (ㄱ) 프로도 경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의 성공이 뉴질랜드에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뉴질랜드는 영화 한 편의 성공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었다. (ㄴ) 한국 영화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영화 <해운대>의 경우 흥행 수입이 약 8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영화로 인해 고용 증대와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까지 오르게 되었다.

보조사 ‘도’는 문단 층위에서 문단들을 연결하는 데도 쓰인다. (6)은 소

6) Hiands(1979:136)는 문장보다 크고 단락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하위 단위로서 ‘segment’를 도입하였다. 정병선(1995:29)은 이 하위 구성소를 ‘문장군’이라고 이름하고 ‘단락’과 구별하여 ‘단락은 문장군보다 크거나 같으며 글의 내용을 펴 나감에서의 기본 단위로 되나 문장군은 단락보다 작거나 같으며 문장보다 큰 언어 토막’이라고 하였다(김미선 2007:151,152 재인용).

비자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 (6) 오늘날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다.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 효과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작용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매출 및 개발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얼마 전 소비자 체험단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냉장고가 출시되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6)에서 자매항의 명제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의 활동’와 선택항의 명제 ‘제품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자의 활동’는 ‘도’에 의해 결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사 ‘도’는 텍스트 내에서 문단, 문장군, 문장, 명사, 구, 절 등을 연결한다. 그러나 이 중 문장군은 단락과 그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단락 안에 문장군이 형성되기에는 짧은, 600자 분량의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결속 단위에서 ‘단락군’은 제외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텍스트 결속 단위는 다음과 같다.

문장 내 - 문장 간 - 단락 간

---

7) 정병선(1995:29)은 문장군은 단락과 같거나 작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김미선(2007:152)은 문장군과 단락을 같은 크기로 보면 경계가 모호하고 단위 간의 계층성이 사라져 버리므로 문장군은 단락보다 작은 단위로 보아 ‘단락의 중심 의미를 유지하는 문장의 연쇄체’라고 하였다.

## 4. 연구 방법

### 4.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에는 중국어권 한국어 중급 학습자 20명과 비교 집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국적은 중국, 대만으로 하였으며 중국에는 홍콩 출신의 학습자도 포함하였다. 이들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집중과정에서 3급 또는 4급을 수강하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였다. 외국인 실험 참여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외국인 실험 참여자 정보

	외국인 실험 참여자
국적	중국(15명), 대만(5명)
숙달도	3급(10명), 4급(10명)
성별	여자
연령	만 24세
한국어 학습 기간	1년 3개월
한국어 학습 목적	진학(12명), 취미(6명), 취직(2명)

한국인 실험 참여자는 한국인의 전형적이면서 모범적인 텍스트를 수집하고자 국어국문학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인 실험 참여자는 현재 국내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로 평균 4년 9개월의 교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원 표준어를 사용하였다. 한국인 실험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lt;표 2&gt; 한국인 실험 참여자 정보

	한국인 실험 참여자
성별	여자
연령	만 32.6세
학력	대학원 졸업 이상
전공	한국어교육(19명), 국어국문학(1명)
한국어교육 기간	4년 9개월

#### 4.2. 자료 수집 방법

중국어권 학습자의 구어와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 수집 도구로 자유 작문(free Composition)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실험 참여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자유 작문에 사용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lt;표 3&gt; 자유 작문의 과제 설정

	자유 작문
텍스트 유형	설명적 텍스트
텍스트 주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
텍스트 분량	원고지 600자 이상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유 작문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운동’, ‘음식’, ‘수면’ 등 2~3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 그로 인한 효과 및 주의사항 등을 쓰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 후 작문 자료는 전사 과정을 거쳤다. 띄어쓰기가 없는 중국어의 영향으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많

있는데 철자 오류는 수정을 하지 않고 띄어쓰기 오류만 수정하여 전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국어권 학습자 20명,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이 생산한 문어 텍스트 40개의 자료가 구축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어절 수, 문장 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문어 텍스트의 어절 수와 문장 수

실험 참여자	어절 수	문장 수
중국어권 학습자	3,404	374
한국어 모어 화자	4,332	321

## 5. 연구 결과

5장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양상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5.1은 연구 문제 1에 관한 연구의 결과이며, 5.2는 연구 문제 2에 관한 연구의 결과이다.

### 5.1.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단위별 사용 빈도

먼저 텍스트 응결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보조사 ‘도’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였는지 총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5>는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보조사 ‘도’ 사용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보조사 ‘도’의 총 사용 빈도

실험 참여자	총 사용 빈도	총 어절 수/ 총 사용 빈도	총 문장 수 / 총 사용 빈도
중국어권 학습자	88	38.7	4.24
한국어 모어 화자	76	57	4.22

<표 5>에서 ‘총 어절 수 / 총 사용 빈도’는 보조사 ‘도’가 1회 출현하는 어절 수를, ‘총 문장 수 / 총 사용 빈도’는 보조사 ‘도’가 1회 출현하는 문장 수를 나타낸다. 이를테면 전자가 3이면 ‘도’가 3어절 당 1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가 3이면 3문장 당 1회 사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보조사 ‘도’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는 총 88회,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는 총 76회가 나타났다. 문장 단위로 살펴보면, 중국어권 학습자는 4.22 문장 당 1회, 한국어 모어 화자는 4.24 문장 당 1회 사용하여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이를 통해 중급 수준에 도달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라면 양적으로는 보조사 ‘도’를 한국인 못지않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조사 ‘도’의 총 사용 빈도는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텍스트 결속 단위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표 6>은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텍스트 결속 단위에 따른 보조사 ‘도’의 사용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텍스트 결속 단위별 보조사 ‘도’의 사용 빈도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	총합
중국어권 학습자	37 (42%)	39 (44.3%)	12 (13.7%)	88 (100%)
한국어 모어 화자	31 (40.8%)	29 (38.2%)	16 (21%)	76 (100%)

<표 6>을 보면, 텍스트 결속 단위별 사용 빈도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문장 간 결속(44.3%) > 문장 내 결속(42%) > 단락 간 결속(13.7%)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사용 빈도가 문장 내 결속

8)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장 당 어절 수는 9.1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장 당 어절 수는 13.5개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생산한 문장이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장보다 약 1.5배 더 길었다.

(40.8%) > 문장 간 결속(38.2%) > 단락 간 결속(21%)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에 빈도 차가 문장 내 결속은 1.2%로 작은 반면, 문장 간 결속은 6.1%, 단락 간 결속은 7.3%로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하여 보조사 ‘도’를 문장 간 결속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역으로 단락 간 결속에는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보조사 ‘도’ 사용이 여전히 문장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받은 문법 ‘도’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문장 내의 관계나 직접 이어진 두 문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문장 중심 문법에서는 문장을 최대의 언어 분석 단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통사구조상 수평적인 선후 관계로 이어져 있는 문장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장 중심 관점이 여전히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남아 있어, 한국어 문법 교육도 문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장 차원에서뿐 아니라 보조사 ‘도’를 단락 간에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도’에 대한 교육이 텍스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어서 결속 단위에 따라 오류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 단위별 오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7> 텍스트 결속 단위별 보조사 ‘도’의 오류 사용 빈도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	총합
중국어권 학습자	2/37 (15.4%)	9/39 (69.2%)	2/12 (15.4%)	13/88 (100%)

결속 단위별 오류 사용 빈도는 문장 간 결속(69.2%) > 문장 내 결속

(15.4%) = 단락 간 결속(15.4%)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문장 내, 단락 간보다 문장 간에서 보조사 ‘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보조사 ‘도’가 단락 간 결속에서 사용 빈도는 낮으나 정확성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보조사 ‘도’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장 간 결속에서 나타난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와 같은 오류를 일으키지 않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장 간 결속에서 나타난 보조사 ‘도’의 오류 사용 양상을 5.2의 텍스트 단위별 결속 양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 5.2. 보조사 ‘도’의 텍스트 단위별 결속 양상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이 텍스트 결속 단위에 따라 어떠한지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 순으로 살펴보았다.

### 5.2.1. 문장 내 결속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문장 내 결속 양상에는 특징적인 점이 있다. 먼저,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이 ‘~(으)ㄴ 뿐만 아니라 … 도’의 형태로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sup>9)</sup>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장 내 결속의 빈도는 총 37회였는데, 그 중 14회가 ‘~(으)ㄴ 뿐만 아니라 … 도’ 형태로 나타나 38%를 차지하였다.

9) ‘~(으)ㄴ 뿐만 아니라 ~도’는 일종의 문맥 현현의 예이다. 이를테면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한다’가 함의로서 갖는 의미 내용을 실제문에 실현시킨다면 이 형식의 대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직장생활을 한다.’로 문장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홍사만 2002:195,196).

- (7) 어른뿐만 아니라 요즘 어린이도 비만이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⑫
- (8) 완벽하고 예쁜 바디라인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향상 될 것이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⑭
- (9) 매일 사람에게 웃어서 자신의 기분이 좋은데다가 다른 사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⑩

(7)은 어휘 결속의 경우이다. (8)은 절을 결속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으)ㄹ 뿐만 아니라 ~도’를 사용하여 절과 절을 결속한 경우는 총 14회 중에서 13회였다. 또한 (9)와 같이, 유사 문법인 ‘~(은)ㄴ데다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으)ㄹ 뿐만 아니라 … 도’의 형태가 많이 사용된 데에는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으)ㄹ 뿐만 아니라’에 해당되는 중국어 접속사 ‘不但’가 일반적으로 보조사 ‘도’와 의미가 유사한 중국어 ‘也’와 호응하여 쓰이기 때문이다.

문장 내 결속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에는 선행절과 후행절 중에서 후행절에만 보조사 ‘도’가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조사 ‘도’의 문장 내 결속 양상은 대부분 절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문장 내 결속 37회 중 33회가 절 결속에 해당되었는데, 그 중 ‘도’가 선·후행 명제에 병렬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12%였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서는 ‘도’가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쓰인 경우가 19%로 중국어권 학습자에 비해서 많았다.

- (10) 자신의 어울리고 좋아하는 방법을 하면 좋은 몸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도 얻을 수 있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⑬
- (11)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몸의 노폐물도 배출이 잘 되고 피부에도 수

분이 보충되어 피부 건강에도 좋고 안색도 밝아졌다. - 한국어 모어 화자 ⑤

(10)과 (11)은 모두 문동의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 문장들이다. (10)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쓴 문장으로 후행절에만 보조사 ‘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쓴 문장 (11)을 보면 4개의 절에 모두 ‘도’를 사용함으로써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효과들을 하나하나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한꺼번에 열거하여 모두 강조하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도 … 도’를 사용하여 나열한 사실이 동일함을 나타내거나 동일하게 강조한다. 중국어에서도 ‘도 … 도’의 대응 표현으로 ‘也 … 也’, ‘又 … 又’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sup>10)</sup> 그럼에도 학습자들이 보조사 ‘도’를 후행절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중급 학습자가 지니는 인지적 부담 및 언어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려면 문장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한 후에 문장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에게 인지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인지적 부담이 적은 방식 즉, 선행절을 발화한 후 후행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후행절에만 ‘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5.2.2. 문장 간 결속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문장 내, 단락 간보다 문장 간 결속 시 보조사

10) 한국어의 경우 문장의 통사구조에 관계없이 ‘도 … 도’의 구문이 사용되어 병렬관계를 표시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문장 내에서 나열되는 요소가 서술어일 경우 ‘也 … 也’가 사용되며 나열되는 요소가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일 경우 ‘又 … 又’가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윤영숙 2007:157)

‘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장 간 결속에서 오류율 또한 가장 높아 69.2%에 달하고 있었다. 문장 간 결속에서 나타난 오류를 살펴보면, 보조사 ‘도’는 주격 조사 ‘이/가’와 함께 쓰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는 그것들이 함께 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12) 외야하면 기름음식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변비 문제가도(변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⑰

(13) 요리할 때 기름을 많이 들어가면 맛이 느껴져서 음료수를 마시고 싶을 뿐만 아니라 살도 쪼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사를 할 때 먼저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나서 고기나 빵, 밥을 먹으면 \*소화에 대한 도움에도 된다(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⑱

(12), (13)과 같이, 주격 조사 ‘이/가’와 ‘도’가 함께 쓰인 경우이다. 보조사 ‘도’는 주격 조사뿐만 아니라 목적격 조사 ‘을/를’과도 같이 쓰일 수 없다. 그러나 보조사 ‘도’가 목적격 조사와 함께 쓰인 경우는 없는 반면 주격 조사와 함께 쓰인 오류는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 모국어인 중국어 ‘也’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선행 문장이나 담화 상황에 전제된 동류에 선행어를 추가하는 경우 부사 ‘也’가 사용된다. ‘也’는 항상 주어 뒤 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이는 보조사 ‘도’가 한정하는 선행어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윤영숙 2007:152). 주로 주어 뒤에 위치하는 중국어 ‘也’의 영향으로, 주격 조사 ‘이/가’와 ‘도’를 함께 사용하는 오류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특히 (13)의 경우, 보조사 ‘도’가 주격 조사 ‘이’와 함께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 ‘도’가 사용된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 보조사 ‘도’는 ‘도움’이 아니라 ‘소화에’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주어인 ‘도움’에

결합된 것으로 보아, 이는 주어 뒤 서술어 앞에 놓이는 중국어 ‘也’의 전이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

아래의 (14), (15)도 문장 간 결속에 나타난 오류의 예로, 공통적으로 ‘-(으)면’에 보조사 ‘도’를 붙여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이다.

(14) 시간이 있으면 하루 중일 1시간 체육관에 가면 되다. 체육관에 등 록한 시간이 없으면 매일 밤에 식사 하을 후에 공원에 가서 산책 을 \*나갈 수 있으면도(나가도) 좋을 것이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②

(15)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공원에 가서 달리면 좋다. 아침에 항상 시 간 없으면 집에 근처에 운동장나 학교 행장에 \*운동하면도(운동해 도) 좋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⑩

(14)는 ‘나가도’, (15)는 ‘운동해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어에서 ‘-(으)면’에 해당하는 ‘的话’에 ‘也’가 결합하는 경우, 양보 즉 ‘-아/어 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모국어의 중국어의 영향이면서 동시에 양보 문법인 ‘-아/어도’ 사용 능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사 ‘도’는 문장 간 결속에서 오류율이 높은데 그 중 보조사 ‘도’의 중국어 대응 표현 ‘也’의 전이로 인한 오류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인한 부정적 전이를 최소화 하고 보조사 ‘도’를 한국어 텍스트의 응결장치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보조사 ‘도’와 중국어 대응 표현 ‘也’의 대조 분석적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구축되어야 한다.

### 5.2.3. 단락 간 결속

보조사 ‘도’의 단락 간 사용 빈도는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

자 간 차이가 가장 큰 접속 단위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어권 학습자가 단락 간 접속을 위해 보조사 ‘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문장 차원을 뛰어넘어 단락 차원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락 간 접속에 사용되는 보조사 ‘도’는 글의 흐름상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데, 단락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다양한 접속 표지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어떠한 접속 표지와 함께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단락 간 접속 시 ‘도’와 공기하는 접속 표지의 빈도 및 유형

	접속 표지의 사용 빈도	접속 표지의 사용 유형
중국어권 학습자	6/12 (50%)	3가지
한국어 모어 화자	9/16 (56%)	8가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락 간 접속 시 보조사 ‘도’는 접속 표지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sup>11)</sup> 중국어권 학습자는 50%, 한국어 모어 화자는 56%의 경우에 접속 표지를 함께 사용하여, 사용 빈도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접속 표지의 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는 3가지에 불과한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는 8가지가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조사 ‘도’와 함께 다양한 접속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보조사 ‘도’와 함께 쓰이는 접속 표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이은희(2001:98)은 접속을 텍스트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로 보고 접속 관계가 언어적으로 나타난 것을 접속 표지라고 지칭하였다. 여기에서 접속 대상은 접속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언어적 요소를 뜻한다. 접속 표지에는 접속 어미, 접속 부사, 구절적 접속어 등이 있다.

<표 9> 단락 결속 시 보조사 ‘도’와 출현한 응결장치

	접속의 응결장치
중국어권 학습자	그리고(3개), 또한(2개), 둘째(1개)
한국어 모어 화자	또한(2개), 이 밖에(1개), 이 외에(1개), 또(1개), 그리고(1개), 다음으로(1개), 마지막으로(1개), 뿐만 아니라(1개)

또한 단락 간 결속에서는 문장 간 결속에 비해서 오류율이 낮지만 그와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단락 간 결속에 나타난 오류이다.

(16)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막힐 수 있어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우리도 적당한 운동해야 한다(\*적당한 운동도 해야 한다). 나는 운동 중의 가장 좋은 것 수영이다. 건강으로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체력도 향상될 것이다. - 중국어권 학습자 ⑭

(16)은 선행 명제에 후행 명제를 첨가할 때 뒤 후행 명제의 어느 부분에 ‘도’를 결합시켜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보조사 ‘도’는 ‘우리’가 아니라 ‘운동’에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도’가 주어인 ‘우리’에 결합된 것으로 보아, 예문 (13)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주어 뒤 서술어 앞에 놓이는 중국어 ‘也’의 전이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있다.

## 6.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산한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보조사 ‘도’의 텍스트 결속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 결속 단위를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먼저 보조사 ‘도’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문장 간 결속 > 문장 내 결속 > 단락 간 결속 순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한국어 모어 화자는 문장 내 결속 > 문장 간 결속 > 단락 간 결속 순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의 보조사 ‘도’ 사용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문장 간 결속에 치중되어 있으며 단락 간 결속에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어권 학습자가 문장 간 또는 문장 내 결속 위주로 보조사 ‘도’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보조사 ‘도’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문장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조사 ‘도’를 문장 차원이 아닌 텍스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텍스트 차원의 교육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을 텍스트 결속 단위에 따라 문장 내, 문장 간, 단락 간에 각각 살펴보았다. 보조사 ‘도’의 문장 내 결속 양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하나는 문장 내 결속이 특정 형태 ‘~(으)ㄴ 뿐만 아니라 ~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문장 내 결속 시 ‘도 … 도’의 형태로 선행 명제와 후행 명제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하여 중국어권 학습자의 텍스트에는 이러한 구조가 적게 나타났다. 중국어권 학습자는 문장 내에서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초점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문장을 길게 이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문장 간 결속에서는 주로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어권 학습자가 보조사 ‘도’를 문장 간 결속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큼, 문장 간에서 오류가 가장 많았다. 그 중 보조사 ‘도’의 중국어 대응 표현 ‘也’의 전이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생산한 다량의, 다양한 작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보다 심도 깊은 오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단락 간 결속에서는 보조사 ‘도’와 함께 쓰이는 접속 표지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국어권 학습자들도 한국어 모어 화자 못지않게 보조사 ‘도’와 함께 접속 표지를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하여 ‘도’와 함께 출현하는 접속 표지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아, 보다 다양한 접속 표지 사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보조사 ‘도’의 결속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보조사 ‘도’ 교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보조사 ‘도’는 한국어의 특징적인 텍스트 응결장치이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목표어 화자 같은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에 응결장치로서의 보조사 ‘도’의 사용 능력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보조사 ‘도’ 교육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고영근(2011). 텍스트과학, 파주 : 집문당.
- 김미선(2007). 말뭉치 분석을 통한 접속부사의 결속 단위 고찰, <한국어학> 34권, 한국어학회, 141쪽~167쪽.
- 민주희(2011). 한국어 학습자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기제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명희 & 안경화(2003). 영한 번역 기사문의 응결장치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15호, 199쪽~223쪽.
- 양세희(2014). 국어의 조사 교육에 대한 연구 : 담화 문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영숙(2007). 보조사 ‘도’의 기능과 해당 중국어 형태소와의 비교, <한국어교육> 18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5쪽~165쪽.
- 이은희(2001).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정란(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구두 발표와 보고서에 나타난 응결장치 비교. <한국언어문화학> 8-2호, 한국언어문화학회, 165쪽~184쪽.

- 이혜영(2011).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구두 발표의 담화 분석 : 교포와 비교포 구두 발표 담화에 나타나는 문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권 4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283쪽~306쪽.
- 임유리(2015). 맥락 중심의 보조사 교육 연구 : 보조사 ‘도’와 ‘만’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 박이정.
-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도서출판 역락.
- 황미향(1998). 한국어 텍스트의 계층구조와 결속표지의 기능 연구 : 읽기 능력 측정과 읽기 교재 구성 방안 모색,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Halliday &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 Longman.
- Hiands(1979). Organizational patterns in discourse. Syntax and Semantics 12, Academic Press.

이민경(Lee Minkyung)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 언어교육원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번호: 02-3277-3699

전자우편: dearmk79@ewha.ac.kr

접수일자: 2016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9월 13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23일